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된 지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범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방역으로 조금씩 전환하고 있다. 비록 광중 입장은 허용되지 않지만 프로 야구가 무관중 경기로 개막되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를 중계하고 있다. 고 3 수험생들부터 학교 수업을 정상화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합제도의 도입을 약속했다. 과연 우리에게 포스트 코로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세계적인 대유행의 상황을 분석해 보

포스트 코로나, 세 가지 쟁점

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생각했던 선진국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보다 늦게 대유행을 겪고 있는 영국이 최대 피해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근대의 문명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복지국가 모델의 실패를 거론하기도 한다.

아시아에서도 방역 모범국으로 간주되다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싱가포르를 우리는 곤혹스럽게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 방역은 성공했으나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낭패를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자신들에게 충분한 의료역량이 없음을 인정하고 일찍부터 높은 수준의 통제를 실시한 덕분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의 교통 사정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의 '블금'처럼 몹시 혼잡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만에 이태원 클럽이 새로운 집단감염의 현상이 되었

고, 소수자 혐오를 동반한 고질적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었다. 범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지 한 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커진 경고등이다. 외국의 언론들은 방역 모범국인 한국이 경제 재개와 바이러스 차단 사이에서 그리고 인권과의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논평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자연재해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것을 자연재해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세계 최대 피해국인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의 원천을 중국으로 지목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대유행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영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 경도되었다는 비판에는 독일도 동조하고 나섰다.

중국은 오히려 많은 나라들에 대한 지원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협력보다는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다. 이런 중국 책임론의 끝은 어디인가? 코로나의 역설은 치료 약 개발을 위한 경쟁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우리는 미-중 간

헤게모니 경쟁에서 의연해야 할 뿐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BC)과 코로나 이후(AC)로 나뉠 것이라는 예측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그런 비유가 상당히 과장된 것이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이 확인해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비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부상하는 뉴 노멀(New Normal)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세계관으로는 반복되는 대규모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뉴 노멀이 과연 생태주의일지 새로운 공동체주의일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의 세계가 기존의 정상과 새로운 정상 간의 사회철학적 투쟁의 장이 되리라는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는 이런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있는가? 세계는 한국이 가는 길을 주시하고 있다.

社說

‘전두환 5·18 때 광주 방문’ 증언 또 나왔다

‘광주 학살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씨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를 방문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씨가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광주에 와 회의를 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는 구체적인 목격담이다.

5·18 당시 공군 헌병대 수사요원으로 광주 제1 전투비행단 상황실에서 첩보 활동을 맡았던 장 모(61) 씨는 최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5월 20일이나 21일 오후 3~4시경 외곽을 순찰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활주도에 있는 ‘대통령 전용기’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장 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비행기 주변 동료에게 누가 타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보안사령관이 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이어 “전두환과 그 일행들이 상황실 건너편에 위치한 조종사 식당에서 헌병대장, 비행단장 등과 모여 회의를 하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전 씨 등이 선무방송을 하는 헬기편을 타고 광주 시내를 돌아봤다는 보고 내용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5·18 연구가들은 기존 증언들을 토대로 할 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군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던 오원기 씨는 “1980년 5월 21일 전두환이 용산 미8군 헬기장에서 공군 UH-1H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갔다”고 밝혔고, 미국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도 “전두환이 5월 21일 광주 비행장에 도착해 상무대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서 정호용 등과 회의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 씨가 1980년 5월 21일경 용산 미8군 헬기장에서 성남 비행장으로 이동한 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광주에 와 다시 헬기로 상황을 둘러본 것이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5·18 당시 전 씨의 광주 방문 여부는 핵심 의혹으로 남아 있는 발포 명령자 규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제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들 증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전 씨의 광주 방문 시기와 이동 경로 등을 우선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의 사유물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의 ‘사유화 결의’ 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 주주들은 며칠 전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이행을 약속한 노동계의 입장을 신뢰한다”면서도 “GGM에 대한 외부 기관의 어떠한 경영 간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마치 주주와 경영진의 사유물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외부 감시 없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그동안 투입된 광주시민의 세금을 모두 반납하라”는 격한 반응도 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GGM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 존중

·사회연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GGM 주주총회의 외부 기관 경영 간섭 배제 결의는 무엇보다 광주 시민을 대표하는 광주시와 지역사회를 외부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수많은 난관을 헤쳐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결코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모임이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광주 사회를 마치 GGM사업에 부당하게 참견이나 하는 외부자로 규정하고 경영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GGM은 광주시가 1대 주주로 나서 공적 투자를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준해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춘 특·특

코로나19 시대, 시골 생활 중 느낀 것들



김지민 동신대 한의예과 2학년

의외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진 TV프로그램이 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자연 속에 사는 자연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며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잠든 행복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아빠 옆에 앉아 한 두 번 시청하다 보니 어느새 산속 자연인들의 삶에 매료되었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동경도 점점 커져 갔다.

사실 어렸을 때는 시골을 좋아하지 않았다. 시골 특유의 흙냄새와 퇴비 냄새가 싫었고 벌레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과자를 사러 마트에 가려면 30분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어렸던 나에게겐 힘들었기 때문이다. 명절을 맞아 할머니 댁에 가도 벌레가 무서워 ‘빨리 집에 가자’며 부모님을 졸랐던 기억이 있다.

시골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

꾸게 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면서다. 바깥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몸이 더욱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때 학교로부터 1학기 수업을 모두 사이버 강의로 진행한다는 공지를 전달받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날 밤 짐을 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아빠와 함께 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로 내려오게 됐다.

함평의 어느 마을, 산 아래에 위치한 할머니 댁은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가족들이 텃밭을 가꿀 때에만 왕래하는 곳이기에 한적했다. 짐을 풀면서 시골에 내려온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지만 이왕 내려온 것 오랫동안 버티 보자고 다짐했다.

자연은 잔잔하면서도 빠르게 내 생활 패턴을 바꿔놓았다. 광주 집에서는 아침 9시가 다 되어 일어나 부라부라 강의를 들을 때가 많았는데, 시골에서의 아침은 창호지 구멍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햇빛을 맞으며 시작하기에, 늦어도 아침 7시에는 일어나며 하루를 길게 사용할 수 있다.

시골은 고요할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빠가 출근하면, 혼자 마루에 앉아 햇빛을 쬐며 멍하게 앉아 있거나

책을 읽는데, 풀잎이 바람을 따라 ‘짜아’ 흔들리고 새 지저귀는 소리가 주위의 적막을 채워 준다.

사과를 먹고, 씨가 있는 심 부분을 텃밭 옆에 잘게 잘라 내려놓으면 이따금 새들이 내려와서 물어가는 장면도 볼 수 있다. 멀리서 들리는 소들의 울음과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매실이 ‘톡’ 떨어지는 소리는 도시의 차 경적 소리와는 달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잠시 공상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식사 시간에는 잡곡밥에 집 뒤에서 뜯은 나물과 이웃 할머니께서 주신 재료들로 만든 반찬, 따뜻한 된장국을 먹는다. 가까운 곳에는 편의점도 없기에 자주 사 먹던 과자나 컵라면 같은 정크 푸드는 자연히 멀리하게 됐다. 입맛을 자극하는 피자, 파스타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속이 편해지는 음식들을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게 된다. 가끔은 밥을 먹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며 느리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거나,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본다.

밭작이 세워진 가로등 외에는 밝은 불빛들이 없기 때문에 시골의 저녁은 암흑 그 자체이며, 하늘에 달과 별들만이 환하게 빛난다. 퇴근하신 아빠와 마을 산책을 한

뒤 저녁 식사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방을 덤난다. 방바닥이 데워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열기가 오래가기 때문에 그다음날 아침까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느낌의 미학은 시골 생활 전반에 더해 온돌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물론 시골에서 지내며 마냥 여유롭고 행복하지는 않다. 요즘은 꽃가루가 많이 날라서 마루에 쌓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빗자루로 마루를 쓸고, 벌레들이 항상 주위에 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람 간 접촉스트레스와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관찰하며 힐링을 하는 날들이 만족하고 있다.

빠르고 간편한 조리가 가능한 정크 푸드를 멀리하면 현대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건강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자연의 이러한 가치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불편할까 봐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나 역시 4개월 이후에는 다시 도시에 급박 적응해 원래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시골 생활을 통해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잊지 않고 싶다.

기 고

원격 교육훈련, 혁신으로 한 걸음 더



이정식 광주시 인사정책관

19세기 프랑스 화가장 마르크 루티는 21세기를 상상한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 미래의 학교에서는 기계가 학생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동 공부 기계’가 등장한 21세기도 학생들은 수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인 ‘학교’에 모이고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학교는 어떤가.

지난 4월 9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다. 학교에 가지 않고 수업을 듣는 최초의 학생들이 된 것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통합교육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출석하고, 실시간 양방

향 원격 수업을 듣거나 미리 제작된 수업 동영상 시청한다. 수업 후에는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고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유례 없는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은 강의 사이트에 동시 접속자가 많아 인터넷 서버가 마비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 방법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공무원의 교육훈련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 집합교육 훈련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예정된 집합교육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교육과정들이 늘어 가고 있다.

녹화된 강의 영상을 교육생이 시청하는 콘텐츠 중심의 일방향 교육이 아닌, 실시간으로 강사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양방향 교육이다.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처럼 교육생은 지정된 수업 시간에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다. 질문과 보충 설명은 강사와의 채팅이나 통화로 가능하다.

이처럼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도 실시간 양방향 수업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원격 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간을 두고 확산되었을 교육훈련 혁신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공무원교육원도 다가오는 6월부터 모든 교육과정에 LMS를 적용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QR코드 출력, 근태관리, 설문 등 교육 전반 사항이 온라인을 통해 관리된다. 교육생의 데이터는 시스템을 통해 축적돼 차후 교육과정 개선에 사용될 것이다.

대면 교육은 강사와 직접 소통하며 배울 수 있고, 학습의 집중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대면 원격 교육훈련의 장점은 무엇일까. 기존에 운영된 일방향 원격 교육훈련은 흔히 ‘사이버 강의’라고 불린다. 고품질의 다양한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교육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최근 시도되고 있는 양방향 원격 교육훈련에서는 채팅 등을 이용해 강사와 다른 교육생들과의 협업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학생도,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공무원도 새로

운 방식의 교육 혁신이 적용하기 혼란스러울 것이다. LMS, 강의 플랫폼 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광주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혁신 방향 중 하나는 미래 사회 변화의 이해와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행정 변화의 선두에 서야 그에 따른 미래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강의 플랫폼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교육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아닌 원격 교육이 도입되는 일을 위기임과 동시에 미래 공무원 교육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19세기의 화가는 먼 미래인 21세기를 상상했지만, 21세기의 우리는 가까운 미래를 상상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화상회의 용도로 주로 쓰이던 플랫폼이 양방향 원격 교육에 활용되는 등 원격 교육이 대면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등을 활용한 현장과 차이 없는 원격 교육훈련이 당연시되는 날도 머지않았다. 교육 방법의 혁신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라 하겠다.

無等鼓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2년 동안 당면 과제인 방역에 있어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넘고 고용안정망 확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구체적 포부를 밝혔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후폭풍에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은 높은 국민적 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실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무려 71%를 기록했다.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취임 3주년을 앞둔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선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로는 코로나19 방역 대처를 잘했다는 단기적 측면도 크지만 근본적 배경은 그동안 보여 온 국정 운영의 ‘진정성’에 있는 듯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만한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대표적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한반도 비핵화 시기도 북미 관계 경색으로 멈춰 선 지 오래다. 여기에 장기화된 적폐청산 논란과 활기를 찾지 못하는 민생 경제, 조국 사태로 인한 민심 분열 등도 대통령으로서서는 아픈 지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지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 공정과 정의, 혁신 성장 등으로 대변되는 미래 가치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분투 때문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보태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지지율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기대는 높고 현실은 위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진정성의 힘은 결국 현실적 삶에 기반한다. 높은 지지율을 민생의 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것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문 대통령이 이뤄 내야 하는 최대 과제다. 촛불 혁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만을 경계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적 소통을 통해 미래를 열어 가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겸 선임기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